

■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제4강

예술에 기술을 더한 '미디어아트' 무한한 변형... 진리를 새롭게 하라



'미디어아트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숙명여대 박영욱 교수

미디어아트의 등장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기술에 예술을 입힌, 아니 예술에 기술을 더한 새로운 예술형태인 미디어아트는 그동안 전통적 예술양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선함을 던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늘날 미디어아트를 피곤한 예술로 치부하며 냉소하는 경향도 있다.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갖는 철학적 요소가 약하고, 시간이 흐르면 서 권위적으로 반복되는 작품들이 새로운 것보다 낡아 보일 수 있다.

16일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이 광주비엔날레 제4강에서 숙명여대 박영욱 교수는 "미디어아트는 무궁무진한 변형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대중과 소통하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박 교수는 사회철학을 기본으로 문화·예술로 관심 영역을 확장시켜 다양한 담론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다.

"미디어아트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강연한 박 교수는 이날 사진과 영화, 축음기(음악) 등 과거 새롭게 등장했던 예술매체들이 예술계에 끼친 변화들을 사례로 이야기를 풀었다.

20세기 전만 하더라도 내면의 철학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만이 예술로 인정받았다. 사진이 예술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이 같은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철학에 바탕한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화가 베첼리오 티치아노의 작품 '신성한 사랑과 세속적 사랑'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사진은 작가의 예술적 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예술로 보지 않는 견해가 강했다"고

말했다. "티치아노의 그림에는 미의 여신 비너스, 사랑을 상징하는 큐피드, 허영을 나타내는 보석상 등 기호학적인 도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상들은 작품에 다양한 철학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이미지의 내용을 보는 것' '지식을 바탕으로 보는 것'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철학적 전제를 읽어내는 것' 등 3가지 전제를 모두 만족해야만 예술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종대왕이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고 큐피드와 비너스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담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축음기가 등장하면서 톤에서 파동과 소리로 영역이 확장됐고, 영화도 디지털 시대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어요. 예술을 사고나 사물의 개념적 측면만이 아니라 도식(scheme)과 상상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앞서 제기한 '디지털에 기반한 미디어아트의 특별한 무엇'은 '변형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예초 작품이 작가의 로망과 철학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무한한 변형으로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단 이런 것들이 좋든 나쁘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일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일반과 소통하는 것이 라면 미디어아트는 예전 회화의 규칙성을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해요. 정해진 코드만 읽는 것이 예술이라면 그것은 '폭력적 담론'일 것입니다."

박 교수는 미디어아트와 예술 그리고 예술이 주는 철학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진리가 변형가능하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려있어야 합니다. 뒤편이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아트고,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16일 박영욱 숙명여대 교수가 미디어아트의 무한한 변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호남 아라리오'

전남과 경북 도립국악단의 영·호남 교류공연이 화순과 구미, 서울에서 순회 공연중이다. '영호남 아라리오'를 주제로 국악관현악, 창극, 무용극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17일 화순을 시작으로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1일 경북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순회 공연된다.

17일 화순하늬문화체육센터 적벽혈에서 열린 첫 공연은 1부 행사로 경북도립국악단의 관현악 '봄바'와 '아리랑', 경기도 당고을을 위한 타악협주곡 불꽃이 무대에 올랐다.



전남·경북 도립국악단

31일까지 순회 공연

'봄바'는 각설이들의 음악을 사용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삶과 내면세계를 국악 관현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아리랑'은 해금과 가야금의 민요 아리랑 선율 속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지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표현됐다.

이어 2부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창극 '심청'을 선보였다. 창극 심청은 판소리 심청가를 창극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3장으로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용극 춤을 위한 아리랑 '조화'가 공연됐다. 황호준씨가 작곡하고 정영래, 송문숙씨가 안무자로 참여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삶이 묻어낸 조각가 문옥자의 초상

시립미술관 중진작가 초대전 11월10일까지 상록전시관

그녀의 조각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단했던 시절 우리 '누이'의 얼굴을 담은 조각에는 "순수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향수를 일깨우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 따뜻한 부자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있고, 때로는 타락한 성에 대한 비판을 담은 조각으로 이야기를 건넨다.



'Contest'

조각가 문옥자(호남대 교수)씨의 40여년 작품 세계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중진 작가 초대전(11월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을 통해서다.

그녀는 대리석, 브론즈, 테라코타, 나무, 지점토 등 다양한 재료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완성맞춤인 작품을 내놓는다.

180평 6개의 공간에 펼쳐진 그녀의 작품은 '점점 시리즈', '짧은 오빠의 초상'을 비롯해 초창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 등 다채롭다. 또 작가의 부모님이 살았던 한옥의 문짝

을 활용한 설치작품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조형물 사진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문의 062-613-54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낭만유랑단, 올 마지막 '낭만콘서트'

내일 예술의거리 중앙초교 사거리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거리공연을 가졌던 낭만유랑단이 올 마지막 공연을 '낭만콘서트'로 장식한다.

브로밴드, 박재형, 힙합그룹 '라이저크루' 등 그동안 낭만유랑단으로 참여했던 팀들이 출연해 가을 정취 물씬 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관객들을 위한 다과도 준비됐다.

2013아시아문화예술상화점점프프로그램 노들마루사업단(총감독 심호운)은 19일 오후 4시 예술의 거리 중앙초교 사거리에서 낭만유랑단의 '낭만콘서트'를 개최한다.

낭만유랑단은 예술의 거리의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거리공연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감쪽공연을 기획해 행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문의 062-670-7455, 062-471-151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3일, 광주여성대회·무등여성대상 시상식



제21회 광주여성대회 및 무등여성대상 시상식이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보고(김경신 전남대 교수)와 시상식이 이어진다. 제21회 무등여성대상에는 강정인(68·여성신문 광주지사장)씨가 선정됐다.

24개 광주지역 여성단체협의회와 회원과 회원 및 5개 자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대회는 박영희(사진)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강은태 광주시장의 격려사, 조호관 광주시의회 의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또 이날 수여되는 무등여성대상의 심사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남성목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통일 정책과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통일토론회가 진행된다. 문의 062-363-940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문의 061-375-2383

HP. 010-6656-0002